국립국어원 소식

1. 한국어 교육의 대안 제시에 앞장서

1.1. 이주민 대상 한국어 음성 교재 개발과 방문 교육 방안 연구서 발간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음성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첫걸음, 중급)』의 시디(CD)(카세트테이프 포함)와 '방문 교육 제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각종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지만 법무부 조사 결과, 2% 미만의 이주민들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집합 교육의 형태로 실시되어 가사와 출산, 육아 등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결혼 이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집합 교육 이외의 교육 방안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자습하기 쉬운 음성 교재와 방문 교육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1.2.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학습 자료

이번에 발간된 음성 교재는 시디(CD)와 카세트테이프 형태로 개발되었는데 2006년 국립국어원에서 개발되어 실제 결혼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

재 2종(첫걸음, 중급)'을 토대로 하였다. 이 교재는 그동안 책자 형태로 개발되어 인기는 높았지만 학습자들이 혼자 공부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출간된 음성 교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 교재는 엠피스리(mp3)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도 변환이 가능하여 일상에 바쁜 이주민들에게 자습 교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걸음 음성 교재 중급 음성 교재

2. 국립국어원-한국게임산업진흥원, 게임 언어 정비 공동 사업 협약 체결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과 (재)한국게임산업진흥원(원장 최규남)은 4월 17일(목) 업무 협정을 체결하고 게임 언어 건전화를 위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언어사용 실태가 매우 불건전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동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비속어와 폭력적 표현의 무분별한 사용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른 언어사용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양 기관은 공동 협약을 통해 앞으로 **▲ 게임 이용자들의 건전한 언어사용 촉진을 위한 공동 연구 ▲ 게임 분야의 올바른 언어사용 환경 조**

성 ▲ 국어 관련 콘텐츠를 이용한 기능성 게임의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위해서는 게임 개발자와 국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는 첫 사업으로 "건전 게임 언어 지침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비속어 등 이용자 간의 불건전(폭력적·선정적·차별적)한 언어사용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대신할 건전한 언어 표현을 제시함으로써 게임 이용자들이 올바른 언어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또한 "건전 게임 언어 지침서"를 바탕으로 필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소 게임 개발사에 보급하여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 게임 개발사들이 적은 비용으로 게임 언어를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양 기관은 대중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게임 언어생활을 위하여, 건전 게임 언어 교육 교재 개발, 올바른 게임언어 사용 캠페인 및 게임 용어 사전 편찬, 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기능성 게임의 개발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학술회의 개최

- 한국어를 통한 언어 소통 방식의 선진화 선언 -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4월 25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회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외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안에 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와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지난 5~6년간 한류 등으로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학술회의는 이러한 현상을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아시아권의 한국어 교육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국어 교원의 수급 방안, 한국어 교육 과정 등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2007년부터 국립국어원에서 시작한 '세종학당'의 경제적 효과와 운영 효율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세종학당'은 과거 한국어 보급의 차원에서 접근하던 국외 한국어 교육

을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한 언어문화 교류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한 사회교육원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재외 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하여 현지의 교육 시설과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되는 세종학당은 이제 1년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을 조명하며 새롭게 도약할 때가 된 것이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세종학당의 운영 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한국어 교육 방법의 효율화를 통하여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방안과 국외 한국어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한국어 교육계 대표들의 선언문 낭독도 있었다.

4.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 발간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이 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에 의뢰하여 실시한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례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결과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연구는 방송, 신문,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사례들을 수집하여 이를 양적·질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표현들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5. 2008년 제2회 언어 정책 토론회 후기

국립국어원에서는 2008년 제2회 언어 정책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주제	실무 관련 저작권 이해
발표자	채명기(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장)
일시	2008년 4월 30일(수) 14:00 ~ 16:00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채명기 원장은 저작권의 이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저작물과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창작성이 있는 표현 즉 말, 소리, 그림, 형상 등을 가리킨다. 저작권은 이런 저작물을 저작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배타적'이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이용'이란 저작물을 복제 · 배포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채 원장은 어떤 경우에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지 공공 기관이 민간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이용한 사례, 대리 번역 문제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저작권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국립국어원 구성원들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에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실무와 관련하여 용역 및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물의 저작권, 연구 보고서의 출판, 고문헌의 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복사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6. 세종대왕 탄신 611돌 기념 숭모제전 봉행

- 한글 관련 다채로운 행사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 탄신 611돌을 맞아 세종대왕의 민족자존과 민본주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숭모제전(崇慕祭典)을 오는 5.15(목)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英陵)에서 봉행하였다. 이번 숭모제전은 각계 주요인사, 주한외교사절, 종친회 관계자, 세종대왕 위업 선양 및 한글 관련 단체 관계자, 지역주민과 일반 참배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숭모제전은 헌관(獻官・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의 분향(焚香)과 헌작(獻爵), 축관(祝官)의 축문낭독(祝文朗讀), 헌관 4배(四拜)에 이어 대통령을 대신하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헌화(獻花)와 분향(焚香)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국립국악원 연주단 및 무용단에 의해 여민락 (與民樂)과 봉래의(鳳來儀)가 재연되었다. 특히 봉래의의 경우 약 500여 년 만에 세종 조 음악을 복원하고 '용비어천가'의 가사를 무용수들이 직접 노래하고 춤을 춤으로써 비로소 詩·歌·舞가 합일하는 악(樂)을 완성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컸다.

올해 숭모제전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의미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되새길 수 있도록 숭모제전에 이어 오세영 시인의 한글사랑 시 낭송과 김용우 소리꾼의 한글사랑 노래 공연이 세종대왕릉 정자각 앞에서 펼쳐졌다. 이러한 특별무대는 세종대왕께서 과학적, 창의적, 실용적 원리로 창제하신 우리글의 아름다움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경축 분위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참석자들에게 신선한 의미를 던져 주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하여 국립국어원,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 한글 관련 단체들과 함께 한글 글꼴 관련 심포지엄과 전시회(5.19~25), 611돌 세종날 기념 제33회 글짓기 대회(5.17), '특별전/한글, 스승'(5.3~6.1), 제11회 전국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5.16)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세종대왕 탄신 경축 분위기를 더했다.

7. 한글꼴 심포지엄과 한글 주련전 전시회 개최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세종대왕 탄신 611돌을 기념하여 5월 19일(월)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관 4층 문화사랑방 대회의실에서 '한글 시각문화의 향방'이란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5월19일(월)부터 5월 25일(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예관 3층 전시실에서 '아름다운 한글 주련전'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한글꼴 학술 심포지엄과 '아름다운 한글 주련전' 전시회는 국립국어원과 사단법인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 예술의전당이 공동 주최하였다.

'한글꼴' 심포지엄은 5부로 진행되는데 한글꼴과 시각문화의 관계를 정립하고 한글꼴 개발의 역사를 개관함으로써 한글꼴이 시각문화에 미친 영향을 조망하며, 향후 한글 글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제1부에서는 정병규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회장이 '훈민정음과 한글 타이포그래피'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제2부에서는 한재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한글은 글자다'라는 주제 발표를 하였다. 제3부에서는 '한글과 디자인의 만남'이란 주제로 김영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제4부에서는 '한글과 현장' 인터뷰 영상을 상영하며 제5부에서는 종합토론이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글꼴과 한글타이포그래피 용어정립의 타당성, 원칙, 오류 수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매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오늘날 한글 환경에 있어서 한글꼴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름다운 한글 주련전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 회원 120여 명이 직접 제작한 한글 주련 130여 점이 전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통의 창의적 수용과 한국적 정체성을 보여줄 시각디자인의 실험적 전시를 통해 소중한 문화적 전통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아름다운 한글 주련달기 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련'이란 건물의 기둥 등에 옛글에서 따온 명구 등을 나무 등에 써서 걸어 놓은 것으로 주로 한시 구절을 옮겨 놓은 것이 많은데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글로 쓴 아름다운 주련이 전시되었다

8. 문화체육관광부, 한글 선양과 국어 발전에 힘쓴 대한항공, 현대건설, 코오롱건설에 감사패 수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월 20일(화) 오후 3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실에서 한글 선양과 국어 발전에 힘쓴 주식회사 대한항공 이종희 총괄사장, 현대건설 주식회사 이종수 사장,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김종근 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대한항공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한국어 안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그 결과 2008년 2월부터 한국어가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어, 이탈리아어에 이어 세계 7번째로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 안내 서비스' 제공 언어가 되었다. 또 한글 자모로 타이포그래피한 모나리자를 도장하여 항공기를 제작·운항함으로써 세계에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한글로 도장한 항공기는 서울-파리 노선과 유럽 내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다.

현대건설과 코오롱건설은 일본어가 주로 쓰이는 건설 현장의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한 기업으로서 우리말 쓰기 시범 현장으로 선정된 토목·건축 현장에 '올바른 우리말 건설 용어집', '필수 우리말 건설 용어록', '스티커' 등을 배포하였고 우리말 쓰기 현수막을 제작하여 전

시범현장에 부착함으로써 현장 직원들의 '건설용어 우리말 쓰기 운동'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시범 현장으로 지정된 곳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으로도 '건설용어 우리말 쓰기 운동'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 선양과 국어 발전에 공헌한 기업을 격려하고 향후 국어문화운동에 민간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감사패를 수여하게 되었다.

9. 전종환·이하정 아나운서, 국어 홍보대사로

-국립국어원과 함께 국어의 소중함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 수행-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MBC 아나운서 이하정과 전종환을 "국어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2008년 5월 28일(수) 10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위촉식에는 국립국어원과 문화방송 직원, 그리고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규 원장은 홍보대사 위촉을 축하하고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였고, 두 홍보대사는 "국어 홍보대사가 되어 말 한 마디도 더 조심해야 하는 등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홍보대사에 걸맞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종환, 이하정 아나운서는 앞으로 1년간 홍보대사로서 활동하면서 한글날 기념행사 등의 국어 관련 주요 행사에 사회 또는 주빈으로 참여하고 국어 및 국립국어원 관련 각종 홍보물의 제작에 참여할 계획이다.

국립국어원은 전종환, 이하정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이유를 "평소 우리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보대사의 역할에 필요한 대중의 인기와 신뢰가 높으며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지닌 방송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종환 아나운서는 2005년 MBC에 입사하여 '최윤영과 네 남자', '티비 속의 티비', '불만제로', '주말뉴스', '아침 스포츠뉴스' 등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주말뉴스', '섹션티비 연예통신', '브레인 배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하정 아나운서는 2005년 MBC에 입사하여 밝고 깨끗한 이미지로 '주말 스포츠뉴스' 등 다양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이하정의 팝콘(DMB 라디오)'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2007년 봄부터 바르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 '우리말나들이'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어 국어 홍보대사로 위촉하기에 손색이 없으며, 공익성이 높은 각종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기에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국어 홍보대사 위촉식

전종환 국어 홍보대사

이하정 국어 홍보대사

10.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보고서 발간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10권의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식민 지배와 전쟁 등 많은 변화를 겪었고, 산업화 과정에서 다양한 전통 생활 양식이 바뀌고, 기존의 전통 직업들이 소멸되고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고유한 생활어나 전통 직업어는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이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국어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기층 생활어 및 직업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007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조사원 10명을 선발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전국 6개 권역 26개 지점에서 34개 분야, 71명의 제보자를 조사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제보자의 생애 구술 자료와 조사된 어휘에 대한 설명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조사 대상물에 대한 세부 명칭이나 이용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까지도 세밀하게 조사하여 수록하였으며, 완성품을 제작하는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말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전통 생활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앞으로 국립국어원은 동일 항목에 대한 어휘의 각 지역별 차이도 단계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전라도 김치와 제작 과정에서의 사용 어휘와 다른 지역의 김치와 제작 과정에 사용된 말을 조사하고 그 자료를 축적하여 국어의 폭넓은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생활 현장에서 국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생생하고 다양한 어휘를 발굴하고 각기 서로 다른 집단별, 직업별, 영역별 생활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어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립국어원은 이 사업을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집대성하여 직업별, 집단별 특수 사전을 제작하고, 풍부한 멀티미디

어 자료를 정리하여 생생한 현장의 소리와 현실감 있는 시각 자료를 축적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렇게 축적된 자료를 정제하여 국어 문화 체험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국어 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1. 강원도의회 의원 일행 국립국어원 방문

국어 의식을 고양하고, 우리말 가치를 재확인하여 도 차원의 국어 발전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강원도 의회 의원 일행이 국립국어원을 방문했다. 방문자는 강원도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홍건표 의원과 장세국 의원으로, 우리 원에서는 원장님과 김세중 부장, 최용기 부장이 참석했고 조태린 연구사, 김덕호 연구사가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 외래어·외국어 남용이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강원도의회에서는 외래어·외국어 남용을 지양하고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례 제정을 위한 내용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국어원의 자문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어책임관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어원에서는 조례 제정 등의 문제를 광역지자체 국어책임관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강원도의 조례 제정을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임을 약속했다.

12. 2008년 제3회 언어 정책 토론회 후기

국립국어원에서는 2008년 제3회 언어 정책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주제	유의어 분류 대사전과 독서 능력 측정
발표자	김기형(낱말사 대표)
일시	2008년 5월 30일(금) 14:00 ~ 16:00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어 정보 관련 업체인 '(주)낱말'의 사업 범위에 대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연구원들이 산업계의 국어 정보 활용 사례를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된 어휘 즉, 비슷한말, 반대말, 상위어, 하위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 '유의어(類義語)' 관계에 대한 정보를 실은 '우리말 유의어 분류 대사전'은 표제어 규모가 19만여 개에 이르며 각각의 어휘에 어휘 난이도 정보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한국어 낱말망'은 매크로 시소러스로 한국어의 자연어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지식베이스 기술이다. 약 53만 개에 달하는 한국어의 어휘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체계에 따라 분류, 정리하여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화한 것이다.

독서 지수(LQ; Lectio Quotient; LECTIO 지수)는 최저 100에서 최고 1850까지이며 책의 수준과 독자의 독서 능력을 같은 척도로 나타냄으로써 수준별 맞춤독서가 가능하게 하였다. 개인의 독서 지수를 알아보는 독서 지수 측정 평가는 기본적인 독서 능력 뿐 아니라 어휘력과 사고력(사실, 추론, 비판), 그리고 분야별 독서력도 측정할 수 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실무와 관련하여 국어 정보 활용 사업들의 공공성 및 독서 지수의 내용 변인, 사용자의 수요 등에 질의응답이 있었다.

13. 국어 관련 문헌 자료 현장 조사 실시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6월 12일~13일에 걸쳐 청주고인쇄박물관, 김천 직지사의 직지성보박물관, 합천 해인사의 해인사성보박물관을 현장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이상규 국립국어원장이 직접 다녀왔으며, 황용주 학예연구사가 수행하였다.

이번 현장조사는 향후 건립할 계획인 '한글박물관(가칭)'과 '한글영상관(가칭)'의 방향을 모색하고, 주요 사찰에 소장된 한글 관련 자료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는 담당 학예연구관이 유물과 전시품에 대한 소개를 해줌으로써 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추진 중인 중인 북한지역 문헌자료의 조사에 앞으로 국립국어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김천 직지사의 직지성보박물관에는 불교관련 유물뿐만아니라 한국어 문생활사를 알려주는 한글관련 자료도 소장되어 있다. 특히 직지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수다사판 천자문과 유합 목판은 아직까지 그 전모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번 현지 답사를 통해 목판의 사진을 확보하였다. 직지사 조사를 통해 현재 미발굴된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은 2002년도에 개관하였는데, 불교 유물뿐만아니라 유교관련 유물도 다수 소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해인사 장경각의 팔만대장경에만 주로 관심이 모아졌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다른 유물과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글 자료가 발견될 경우 공동 연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국립국어원은 국내외 한글전적의 종합목록이 구축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향후 한글관련종합전적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14. 제79차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2007. 12. 13)

인 명		
개릿, 피터 (로버트)	Peter (Robert) Garrett 1953~ Peter (Robert) Garrett	오스트레일리아 환경 장관 (2007. 12. 3.~). 자연보호와 환경 정책을 담당. 전 록 가수로 환경 운동가.
구르게니제, 블라디메르 "라도"	Vladimer "Lado" Gurgenidze 1970~	그루지야 총리. 국내 최대 민간 은행 그루지야 은행(BOG) 회장(2004~2006.5.). 주라브 노가이델리(Zurab Noghaideli) 총리(2005.2.~2007.11.16.) 후임.
길라드, 줄리아 (아일린)	Julia (Eileen) Gillard 1961~	오스트레일리아 부총리(2007. 12. 3.~).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ALP) 부당수. 여성.
넬슨, 브렌던 (존)	Brendan (John) Nelson 1958~	오스트레일리아 정치가. 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당수(2007. 12. 3.~). 존 하워드(John Howard) 총리의 후계 당수. 전 국방 장관.
데넘, 존 (요크)	John (Yorke) Denham 1953~	영국 정치가. 기술 혁신·대학·기능 장관(2007. 6.~). 전 각외 장관. 이라크전에 반대하여 사임.
러드, 케빈 (마이클)	Kevin (Michael) Rudd 중국명 루커원(陸克文) 1957~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노동당 당수(2006. 12.~). 퀸즐랜드 주 동쪽 넘버(Nambour) 태생. 호주 국립대에서 중국어와 중국 역사를 전공. 1998년 하원 의원. 2001년, 2004년 재선. 대학 동창생인 부인은 터레이즈 레인(Thérèse Rein). 2남 1녀.
릭턴스타인, 로이	Roy Lichtenstein 1923~97	미국 화가. 뉴욕 태생. 팝 아트 선구자의 한 사람. "행복한 눈물(Happy Tears)"은 1964년 작품으로 캔버스에 오일로 그린 가로·세로 96.5cm 크기의 만화풍 그림. 2002년 11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715만 9,500달러(당시 환율로 86억 5,000만 원)에 낙찰. 그의 가장 비싼 작품은 2005년 1,600만 달러에 낙찰된 "차 안에서(In the Car, 1963년작)".

미슐랭, 앙드레	André Michelin 1853~1931	프랑스 타이어 제조 업자. 1895년 교환 가능한 공기 주입식 타이어를 발명. 1863년 동생 에두아르(Edouard Michelin, 1859~1940)와 미슐랭 타이어 회사를 설립. 도로 지도와 여행 안내서도 출판.
바야르, 산자긴	Sanjaagiin Bayar 1956~	몽골 총리. 인민 혁명당 당수(2007. 10.~). 전 인민 혁명당 서기장, 국회의원, 러시아 대사 등 역임. 국민 대회의(국회)에서 11월 8일에 사임한 엥흐볼드(Enkhbold) 총리 후임으로 22일 선출.
베커, 그레이스 정	Grace Chung Becker 1969~	미국 법무부 차관보(민권 담당). 뉴욕 맨해튼의 한국인 가정의 2남 2녀 중 막내딸로 태어나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 스쿨과 조지타운 대학 법학 대학원 졸업. 워싱턴 연방 고등 법원 서기를 거쳐 법무부 부차관보 역임. 연방 정부 노근리 학살 사건 조사단 특별 자문관(2000~2001). 2007년 11월 16일 현직.
블리어스, 헤이즐 (앤)	Hazel (Anne) Blears 1956~	영국 여성 정치가. 지역·지방 정부 장관(2007. 6.~). 무임소 장관(2006. 5.~2007. 6.).
스미스, 이언 (더글러스)	Ian (Douglas) Smith 1919~2007	로디지아 정치가. 총리(1964~1978). 1965년 남로디지아를 영국 식민지에서 일방적으로 독립시켜 국명을 로디지아로 선언, 백인 소수 정권을 수립. 백인 지상주의자. 로디지아는 현 짐바브웨(Zimbabwe).
시런, 조젯	Josette Sheeran 1954~	유엔 세계 식량 계획(WFP) 사무국장. 여성. 2007년 4월 취임. 전 미국 국무 차관(경제·농업 담당). 제임스 모리스(James T. Morris) 사무 국장(2002. 4.~2005. 4.) 후임. 임기 5년.
알렉산더, 더글러스 (가빈)	Douglas (Garven) Alexander 1967~	영국 정치가. 국제 개발 장관(2007. 6.~). 교통·스코틀랜드 담당 장관(2006. 5.~2007. 6.).
웡, 페니	Penny Wong 1968~	오스트레일리아 기후 변화 담당 장관(2007.12.3.~). 말레이시아 출신

		여성.
이케노보 야스코	池坊保子 1942～	일본 문부과학성 부상. 교육・문화 담당. 중의원 의원. 전 중의원 문부과학 위원장. 대한 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英親王) 이은(李垠)의 황태자비 이방자(李方子, 1901～89) 여사 언니의 딸.
조 후지오	張富士夫 1937～	일본 도요타 자동차 회장. 게이단렌(経団連, 경제 단체 연합회) 부회장.
허턴, 존 매슈 패트릭	John Matthew Patrick Hutton 1955～	영국 정치가. 직업・기업과 개혁 조정 장관(2007. 6.～). 고용・연금 장관(2005. 5.~2007. 6.).

지 명		
왈롱	Wallon	벨기에의 프랑스어 사용 지역. 에노(Hainaut), 리에주(Liège), 룩상부르(Luxembourg), 나무르(Namur) 주와 브라반트(Brabant) 주의 일부. 역사적으로 게르만 문화권의 북부 플랑드르(Flandre) 지역(네덜란드어 사용, 58%)과 라틴 문화권의 남부 왈롱 지역(프랑스어 사용, 33%)이 공존. 1932년 언어법으로 동쪽에서 서쪽에 이르는 언어 경계선을 설치. 다만 북부에 속하는 브뤼셀은 양 언어 사용 지역(주민 85%가 프랑스어 사용).

일 반 용 어		
미슐랭	Michelin	여행 안내서. 주로 유럽의 호텔이나 음식점들을 별의 숫자로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유명. 프랑스의 타이어 제조 회사 미슐랭이 매년 개정판을 발행. 원래 여행 중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공장이나 주유소, 호텔 등을 안내하는 무료 책자였음.